



1993년 후보지로 확정된 뒤 2005년 전남도청 입주 직전의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인구 5만4000여명의 도시로 탈바꿈한 2015년의 남악신도시.

‘三分’된 전남 경제권... 시너지 효과 없었다

◇도청 이전으로 전남 ‘삼분’=전남도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전라남도 관찰부가 1896년 8월 4일 나주에서 광주로 옮겨온 지 109년만인 2005년 10월 15일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일대로 이전했다. 이전 후보지는 1993년 무안군 삼향면 일원으로 결정된 뒤 국민의 정부 들어 추진, 그 과정에서 도청 이전 반대 시위와 시·도 통합 요구 등의 우려곡절을 거쳤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목포와 인접한 무안으로의 도청 이전은 동부권 소외, 거점도시 광주의 동력 상실 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여론이 일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악리에 전남도청이 자리하면서 전남도교육청, 광주지검 목포지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지법 목포지원,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 단체 등 76곳의 공공기관이 뒤따라 입주했다. 농촌마을이 공공기관이 집적한 신도시로 개발되면서 서남권의 핵심거점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석유화학·제철 등 산업기반을 지닌 동부권, 거점도시 광주와 연결한 중부권, 공공·행정기관 중심의 서남권 등으로 전남도는 ‘삼분’됐다.

하지만 광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이렇다할 산업기반을 갖추지 못한 서남권의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계획만큼 ‘거창’하지 못했다. 도청 이전 10년 뒤인 최근 목포·무안권의 인구 증가세가 정체 상태로, 소

도청 남악이전 10년... 전남 변화상과 과제

전남도청이 광주에서 목포와 인접한 무안군으로 옮겨온지 10년이 지났다. 도청은 물론 76곳의 공공기관이 이전하면서 조성된 남악신도시가 서남권의 핵심거점으로 자리하면서 전남이 동부·중부·서부권으로 삼분됐고, 인구 8만을 회복한 무안은 해남을 제치고 전남 제1군의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남악신도시가 목포시와 인근 시·군에서 유출된 인구를 구성되고, 거점도시인 광주와 인접하면서 그 효과도 반감되고 있다. 화학·제철 등의 산업기반을 지닌 동부권에서 거리·심리적으로 멀어지고, 광주·전남의 동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공공기관·금융 등 76곳 입주 → 산업기반 없어 이전효과 ‘별로’
무안 인구 8만2천명 ‘郡 1위’ → 남악 전입 73.9% 전남서 유일 소비·건설 등 침체...한은 목포본부 “관광산업 활성화로 활력유”

비·건설 등 지역경기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침체로 각각 돌아섰기 때문이다.

◇인구 8만 넘어선 무안, 전남 제1군으로 =지난 2004년말 무안군의 인구는 6만 2472명이었다. 1967년 30만명을 넘었던 인구가 목포, 광주 등으로 유출되면서 자칫 6만명선도 위태롭게 보였다. 하지만 2005년 남악신도시 조성은 쇠락의 무안을 일약 전남 제1군으로 바꿔놓았다. 무안군의 인구는 2010년 9월 말 7만4061명으로 6년만에 1만1500여명, 다시 2015년 9월말 8만2026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1992년 8만 2163명 이후 23년만에 다시 8만2000명 수

준을 회복했다. 무안군은 지난 9월말 현재 인구 7만6299명의 해남군을 밀어내고 명실상부한 제1군이 됐다.

무안군은 더 나아가 시 승격을 준비하고 있다. 계획인구 2만2000명인 오통지구가 개발되면 10만명은 무난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반영된 것이다. 무안시승격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최근에는 무안시 승격 추진 포럼을 개최하기도 했다.

◇성장세 멈추고 침체가 들어서 ‘모멘텀’ 필요 =지난 6월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내놓은 ‘전남도청 이전 10년, 지역경제 변화와 향후 과제’를 들여다보면 남악신도

시의 효과는 10년이 지나면서 이미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인구인의 73.9%가 전남지역에서 이주했으며, 광주에서 이주한 주민은 8.6%에 불과하다는 ‘압울환’ 통계 이외에도 지난 2009년 이후 도청 이전에 따른 경제효과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목포본부의 분석이다. 우선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목포시와 무안군의 연평균 GRDP(지역내총생산)은 각각 11.6%, 8.9%를 기록했으나 2009년 이후 목포시는 마이너스로 바뀌고, 무안군의 증가율 역시 크게 둔화했기 때문이다. 거기에 2005~2008년 4.0%였던 목포시·무안군 연평균 중사자수 증가율은 2009~2013년 0.9%로 크게 축소되면서 전남 평균(3.3%)에도 미치지 못했다. 대형 소매점 매출, 건설업 업체 및 고용 증가율 등 각종 지표에서도 2000년대 초·중반의 상승세를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면 지난 2004년 말 1920억원이었던 서남권 예금은행의 주택자금 대출은 2014년 말 5234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미약한 외지 인구 유입, 성장 모멘텀 저하, 목포시 원도심 공동화 및 주택자금 대출 급증 등의 문제점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목포본부는 “취약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해 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이를 통해 서남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황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의 33.4%(409명)는 도청 인근 원룸에 홀로 거주하고 있다. 11.3%인 139명은 하루 2시간 이상을 거리에서 보내며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다. 54.9%(673명)만이 목포와 무안 등에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나홀로 거주자와 출퇴근자 대부분은 부부가 맞벌이이거나, 아이들 교육문제 때문에 가족이 모두 광주에서 도청 인근으로 이주하기 어려운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유교책판·이산가족찾기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조선시대 유학자들의 저작물을 간행하기 위해 관각한 목판인 ‘한국의 유교책판’(사진)과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9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는 지난 4~6일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제12차 회의를 열어 한국의 유교책판과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을 심사해 ‘등재 권고’ 판정을 내렸고, 이라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이를 추진해 등재가 확정됐다.

한국의 유교책판은 305개 문종에서 기탁한 책판 718종 6만4천226장으로 구성된다. 내용은 유학자의 문집, 성리학 서적, 족보·연보, 예학서(禮學書·예법에 관한 책), 역사서, 훈몽서(訓蒙書·어린이를 위한 책), 지리지 등이다. 책판들은 현재 경북 안동에 있는 한국국학진흥원 수장고에 보관돼 있다.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은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생방송한 비디오테이프, 담당 프



로듀서의 업무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진행표, 큐시트, 기념음반, 사진 등 2만522건의 자료를 포함한다. 전남인력 1641명이 투입된 이산가족 생방송에는 사연 10만952건이 접수됐으며, 절반을 조금 넘는 5만3536건이 방송에 소개돼 1만189건의 상봉이 이뤄졌다.

이번에 한국의 유교책판과 이산가족 생방송 기록물이 등재되면서 한국의 세계기록유산은 13개로 늘었다. /연합뉴스

노벨평화상에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올해 노벨평화상의 영예는 북아프리카·중동의 민주화 물결인 ‘아랍의 봄’ 운동과 이후의 민주주의 정착 과정을 이끈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에 돌아갔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9일 “‘재스민 혁명’ 이후 튀니지의 다원적 민주주의 구축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다”며 이 단체를 수상자로 발표했다. 이 단체는 지난 2013년 ‘튀니지 노동연맹’(UGTT), ‘튀니지 산업·무역·수공업연맹’(UTICA), ‘튀니지 인권연맹’(LTDH), ‘튀니지 변호사회’ 등 4개 핵심 시민사회조직의 모임으로 결성돼 튀니지의 민주화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아랍의 봄’ 발원지인 튀니지는 2010년 말 시작된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로

이듬해 초 지네 알아비디네 벤 알리 독재정권이 무너진 뒤 암살 등의 정치적 폭력과 광범위한 사회 불안에 시달려왔다. 이런 가운데 노동, 산업·복지, 인권, 법률 등 4개 부문의 대표 조직이 참여한 이 단체가 시민사회와 정당, 행정부 사이의 평화적 대화를 이끈 덕분에 아랍권에서 유일하게 튀니지만 평화적인 민주주의 이행에 성공했다고 노벨위원회는 판단했다. 쟁쟁한 후보들을 제쳐두고 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를 수상자로 선정 한 것은 유일한 아랍 민주화 성공사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난민위기의 근원인 시리아 등 ‘아랍의 봄’ 실패 국가를 압박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전남도 직원 33.4% ‘나홀로 거주’

11.3%는 광주서 출퇴근

전남도청 5급 공무원 A씨는 세 집 살림을 한다. 광주 집에는 맞벌이하는 아내가, 서울 집(월세)에는 대학 다니는 두 자녀가, 무안 원룸(월세)에는 본인이 각각 거주한다. 도청이 지난 2005년 광주에서 무안으로 이전한 후 두 집살림을 하다가 2~3년 전 아이들이 서울로 유학 가면서 본의 아니게 ‘이산가족’이 됐다. 도청 앞 원룸에 홀로 거주하는 A씨는 월세(30만원)와 관리비, 개인생활비 등으로 매달 60만~70만원이 들어간다. 추가 비용이 들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살림이 빠듯해졌다. #여직원 B씨는 매일 오전 6시 30분 광주 집에서 나선다. 6시 50분 집 부근에서 통근버스를 타기 위해서다. B씨는 18만 8000원 월권(1회 편도)은 5천700원을 끊

어 통근버스를 탄다. 전남도청이 이전한 지 오는 15일로 만 10년이 되는데 ‘고단하고 돈 드는’ 근무·생활환경에 처한 직원이 상당수다. 전남도가 지난 6월 분청, 의회사무처, 보건환경연구원, 농업박물관, 도립도서관, F1 대회조직위 직원 1226명의 거주지

북, 노동당 창건 70주년 열병식...사상 최대규모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김정은 국무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상 최대 규모의 열병식을 개최했다. 북한 조선중앙TV와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은 이날 오후 3시(북한 시간 2시 30분)부터 5시50분까지 약 3시간 동안 육·해·공군과 노동적위군 열병식과 군중시위(민간 퍼레이드) 행사 등을 실황 중계했다.

북한 인민군의 김일성광장 입장,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등장에 이어 리영길 군 총참모장의 시작 보고로 본격적인 열병식 행사가 시작됐다. 열병식 주석단에는 김정은 제1위원장 바로 왼쪽에 중국 권력 서열 5위인 류윈산(劉雲山)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이 섰고, 오른쪽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자리했다. 이번 열병식은 2011년 말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 다섯번째다. /연합뉴스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경주서초등학교 출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조신대학교 전남대학교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성 의사, 변호사, 의사, 한의사 27~45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상성, 현대, LG 직원 28~47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교사, 교수 28~49세	여성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교사 27~42세 스타벅스, 영양사 26~42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남성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신 여성' 희망 31~5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해나은행 010 68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마음의 소리를 듣고
 고객의 입장에서 공감하며
 전문성으로 만족스런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서명심 변호사입니다.

형사, 민사, 가사, 행정

사기·성범죄·교통사고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대여금·공사대금·손해배상
 보험금 등 각종 금융사건

법률사무소 名家 변호사 서명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법원 버스정류소)
 대표전화 062)227-7223 팩스 062)227-7224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 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는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이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